



2000년
6월 15일
제 22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춘천기독교 역사 이래 초유의 시민대상 총력전도 실시

- 성시주간행사로 도심청소, 조찬기도회, 직장선교대회, 총력전도실천 -
- 전국대학생 전도자 1천명 1백개 교회전도자와 동시전도 -
- 3일동안 교회별로 숙식 교육, 현장전도, 초청강사 최성규목사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찬 목사)는 오는 7월7~9일까지 춘천 시민은 한 사람도 저속하지 않게 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갈려온 전국 대학생 1천명과 전도의 열망을 가진 1백개교회 성도 1천명이 함께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총력 전도에 나선 계획이며 이 일은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성시화운동본부와 C.C.C. 대학선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5월16일 아침 두산리조트에서 시내 5개 대학생선교회연합회를 조직, 총력전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5월22일 주간기간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으며 총력전도에 대한 공문서와 추진계획을 290개교회에 전달했다.

또한 5월29일 오전10시 C.C.C. 대학생선교회관에서 전도에 동참

을 희망하는 교회,목회자,평신도대표자들을 초청, 총력전도에 관한 보고회를 열고 동참열기를 확산시켰다.

금번 총력전도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조남진 성시본부장은 전도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예수 믿는 성시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며 실행위원장 정경호 목사(춘천C.C.C.대표)는 성도들의 땀과 헌신으로



국내 제2도시 항도 부산에 성시화운동바람 불어

- 400만 시민 복음화를 8% 성시화운동시급 -
- 초교파운동본부 창립, 하나님의 도성 만든다 -

한 도시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6월7일 낮 1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산기독교협의회를 비롯, 지역 500여교회 목사, 장로, 성도와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인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총회에서 본부장 정필도목사(수영로교회), 수석본부장 최홍준목사(호산나교회)를 선출했으며 명예회장 조두형목사(모리야성결교회), 회장 오상진목사(부산교회협의회회장)목사들을 선임했다.

로 열목련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부산의 모든 교회, 선교단체, 기독교단체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성시화의 비전에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모든 교회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산을 가장 거룩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 날 춘천성시화운동을 초기부터 이끌어 온 조남진 장로(춘천성시본부장)는 성시화운동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비전과 보고로 참석자들에게 감명과 도전을 주었고 창립국동방송에 출연, 성시화운동에 대하여 인제대 이윤구 총장과

대담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파했다. 부산성시화운동이 막을 뜨게 된 것은 성시화운동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산고병원장 양인평장로의 사역결과라고 말했으며 그는 춘천성시화운동의 경험과 믿음으로 대전에서 이어 부산성시화의 실패를 한 것이다.

6·25맞아 민관군 연합 구국기도회 연다

- 최이식 목사를 초청강사로 춘천순복음만천성전에서 -
- 군인 5백명,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기독교인들 대거동참 -
- 6월22일 군악제, 26일 종합운동장에서 시범행사도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찬 목사)는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조남진장로)와 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용배장로), 2군단산하 군교회, 시내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6월 25일 오후3시 춘천순복음교회 만천성전에서 6·25전쟁과 춘천대첩 50주년을 기념하고 일선 병사들의 안위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 군, 관 연합 구국기도회를 갖는다.

성경에 기록된 50년 회년을 맞아 분단 조국의 평화통일을 간구하고 전쟁의 매를 맺게된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며 50년간 보호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민, 관, 군, 정치,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다수 참가하는 역사적인 기도회가 될 것이다.

회 내 모듬 때문에 주님께 욕을 들리는 일이 없도록 회개하고 바라는 기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6·25의 잔혹한 재해를 맞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현실을 보면서 구국기도회를 통해 여호와의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구국기도회는 많은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직장선교연합회 창립기념선교대회

- 창립10주년기념 · 강사 전총리 이영덕장로 -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용배장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7월6일 오후7시 30분 소양성결교회 본당에서 이영덕 장로를 강사로 모시고 43개 직장선교회원 가족과 직장인,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직장선교 열기를 일으키는 기도로 삼고자 한다.

동 연합회는 90년 창립당시 5개 직장선교회로 시작, 그 후 43개 직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금번 선교대회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춘천의 직장인들이 인생의 원로이신 이영덕 전 국무총리로부터 주옥같은 삶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춘천의 교회들이 시가지를 청소한다

- 매일, 전교인 참가 각 교회 인근지역 정화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찬 목사)는 춘천성시화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시가지 청소봉사를 오는 7월7일 총력전도대입

회 기간을 맞아 7월3일부터 매일 회 교회별로 교회인근 시가지 정화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성도들은 청소일 아침에 빗자루, 비닐봉투, 삼 등 청소도구를 지참하고 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감리교 동부연회 남선교회 체육대회

- 6월6일 동해 쌍용운동장서 동부연회 후원 -

제18회 동부연회 남선교회 체육대회가 6월6일 삼척시 쌍용운동장에서 회장 장구봉장로 인도로 유대회 장로(장로연합회장)기도, 이기중 장로(전국남선교회장)격려사,

박상혁 목사와 최 연 국회의원의 축하사, 임택강 목사(춘천성사교회)축도, 김명기 감독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22개 지방회 대표로 1,800명의 선수가 참가해 배구, 줄타기, 계주 등의 경기를 통해 파인플레이의 정신으로 모범을 보였고 주안에서 한 형제의 우의를 다졌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선교장례 전문업체

- 장례일은 저희 전문업소에 맡기십시오
- 믿음으로 선교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 어려운 가정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승 기 집사
(광정리교회)

춘천시 온의동 143-7

장의부 직통 0361-241-8111 / H.P 019-301-8111
FAX 0361-241-8110 / 252-8112

귀금속 예술품 전문점 솔로몬

저렴한 가격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대표 이 익 래 · 조 순 숙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엘조이찬양단 소속)

오시는 길: 춘천미도파 백화점 내 1층

☎ (0361) 243-1423 / 243-3634

인도 비하르주 전도대성회에 참여하십시오

기간-2000년 9월 9일-9월 16일까지
수도 파르나 시민대상 전도대성회 · 기도세미나-9월 10일-12일까지
10개 관문도시별 10개팀 구성, 현지인과 함께 숙식, 중보, 전투기도
※ 강사-전도대성회: 김두환 목사
낮 기도세미나: 김성수 목사, 인도 현지인 목사 등

▶참가자 준비요

7월부터 매주 1회 기도회를 갖고 중보기도 및 영적전투 공부

▶참가신청 및 접수처

전화신청 0361-253-2741 (순복음춘천교회 사무실 윤근자)

0361-253-1140 (메트로 신명정교회 기정희목사)

E-Mail신청 bcdhnp@chollan.net 또는 bcdhnp@hotmail.com

▶접수마감

2000년 6월 25일까지 (마감인원:30명)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추석연휴로 비행기 좌석예약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① 성명(한글)	② 성명(영문) 여권 이름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십시오
③ 성별(남/여)	④ 결혼여부(이혼/미혼)
⑤ 생년월일	⑥ 출생교회
⑦ 전화번호(집)	(직장)
⑧ E-Mail	(핸드폰)
⑨ 주소	
▶접수처	

춘천시 효자2동 312-1 메트로 신명정교회 앞(주:200-092)

사설

통일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6월이 오면 (舊)세대는 동족상잔의 참상을 신(新)세대는 지난날 역사일을 떠올리게 된다. 왜, 이 땅에 6·25전쟁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인 답변을 구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나라와 사회, 전통, 문화, 무속 등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탄압과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36년간 나라를 강건하고 민족발상 정책을 행한 일제의 손아귀에서 해방이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공적에 내세우며 눈 앞의 정권장악과 욕을 위한 추한 싸움을 벌이다가 북쪽의 탕크와 군화발에 짓밟히게 된 것이다. 3년1개월 간 동족상잔의 비정한 절망 앞에 수십만의 군인과 민간인이 쓰러지고 2천1백22개 교회가 파괴되고, 목사 535명이 학살당했고 수십만의 과부와 고아를 낳으며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1천만 이산가족들이 오늘날 상처입은 가슴으로 평화통일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자리에 바로 서서 신각하게 반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민족 앞에는 무서운 재앙만이 놓여 있다는 것을 한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가동을 가능케 하신 8·15해방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미신우상을 섬긴 어리석은 민족에게 6·25의 재앙이 내린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크리스찬들 중에도 세속적인 실리추구를 위해 하나님 은혜에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오랜 가뭄 끝에 단비처럼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정상회담이 6월12일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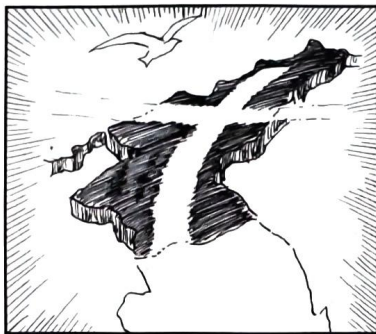
이제 통일의 문까지의 길리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의 정신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하여 무너진 북한지역의 교회를 재건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내의 많은 교회가 교회재건을 위한 재정비축과 신전건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리교단에서는 강원도에 서부연회 두 곳, 38이북 강원도 지역의 무너진 교회재건을 위해 교회별로 이북교회 간판을 현판하고 재건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문단 50년 회년을 맞아 남과 북의 막힌 담과 무너진 3천4십 교회와 원상회복되어 7천만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내 교회 부흥에 앞서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이다.

聖市漫評

김준배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회의서 결정
- 민권군 연합 구국기도, 성시주간, 총력전도 실시 -

황형만 춘천기독교연합회장(춘천침례교회 담임)은 6월8일 오후6시 종가당에서 6·25전쟁 50주년 춘천대립 민간군 연합행사도 교회참여 문제와 춘천시민 총력전도대회 기간 성시주간행사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오는 6월25일 오후3시 춘천순복음교회 만천성전에서 민 권 군 연합 구국기도집회(강사 김성수목사 인천순복음교회 총회장)을 열기로 했으며 7월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총력전도대회 기간과 연계하여 성시주간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7월3일 새벽기도 후 전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교회주변 시가지 청소를 실시한다.

교회별로 어깨띠와 청소도구를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7월4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국가와 민족, 도정과 교계, 총력전도를 위한 조전기도회를 열고 7월6일 오후7시 소양성결교회에서 춘천직장 선교연합대회(강사 이영덕목사)를 개최하여 이회 춘천시민 대상 총력전도를 실시한다. 이번 춘천성시와 주관을 통해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고 연합회 관계자는 말했다.

또 38선에 십자탑 보수와 102보충대 실교, 위문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교계단신

▶ 순복음춘천교회와 다니엘 기도회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는 6월11일부터 제2차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하고 21일 다니엘 번제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 평화감리교회 행사

춘천평화교회(한 권 목사)는 7월23일부터 26일까지 고성 쟁머리장에서 여름하계수련회를 열 계획이며 구국민족각성교회 주체, 본교회 주관으로 6월11~14일까지 고충진, 서재일, 김대성, 조영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수2000-민족을 계우는 은혜대성회가 열린다.

▶ 춘천동부교회(임신영 목사) 남산교회와 춘천성광교회(김광국 목사) 남산교회는 6월16일 새벽6시 남춘천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배구, 축구동경기를 갖고 친선을 도모했다.

▶ 남춘천교회와 아동부 전국 어린이동요제 입상

남춘천감리교회(유진형 목사) 아동부는 5월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어린이 찬송경연대회 및 전국 어린이동요제에 출전, 좋은 성적으로 입상했다.
• 독창부문 최우수상-김성진 / 우수상-전선진 / 중창부문-장려상
• 전국어린이동요제 우수상-이은지

▶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는 6월4일~7일까지 은평교회 김영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믿음의 가운데 새우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열었으며 18일 본교회 시문성가대실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 중앙성결교회와 특별세벽기도회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철중 목사)는 6월19일부터 7월9일 매일 새벽4시30분 예배당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세벽기도회를 연다. 7월3~5일까지 교회창립 66주년기념 정인교 박사 초청 설교세미나를 개최한다.

▶ 춘천부흥문장교회(윤태호 목사)는 6월11일 오후3시 강원도동학고교예수관에서 교회성립 10주년 감사 누르문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누르문인마누엘 찬양단"의 공연을 가졌다.

기독교 문화

요즘 들어서 기독교 문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서정범 국어사전에 보면 문화란 "사람이 지고 세상이 여러이 받게 된"이라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아무런 노력에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없음을 현대 문명은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예수님은 이들은 이광성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어떠하길래 어두운 곳이 많이 있을까요. 도시의 야경을 보면 휘황찬란한 십자가의 네온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가공할 힘이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빛은 우리 마음에 비치지는 주님의 빛 곧 "민명"여기는 빛입니다. "민명"하다란 오랑목부자 안타 가운데 타들어갈 듯한 긍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없는 사람, 비행청소년 등 비틀린 마음을 볼 때, 민명 한 마음이 발동한다면 이는 곧 세상을

밝게하는 빛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가리는 방해꾼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바로 내 가족이요, 친구요, 현실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디다.
"내가 돈을 셀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고 내가 얻은것을 셀 때 그는 잃은것을 세며 내가 창고의 재물을 셀 때 그는 나의 상처의 흉터를 세셨네. 내가 학위와 명예를 탐하여 허탈하게 시간을 낭비할 때 그는 나의 무릎으로 보낸 시간을 세고 우셨네. 이제 고향의 문앞에 와서 아 헛되이 낭비한 시간들을 탄식하네."

이 깨달음이 빠르면 빠른수록 가진것 없으나 여유롭게 후성함이 있으며 민명하고 가난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빛을 낼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예수님을 민명하 여기는 눈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9:36 "무리를 보시며 민명하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유락이더라".

K목사

양구 기독교사회 청소년 구원사역활동

양구지역 초·중·고 각급학교의 기독교인 교사들이 교사회를 조직하고 제자들을 인도해 각 교회에 연결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야 할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이 담긴 바른 전인교육을 통해

배워 인간으로 성장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교회부흥과 구원사역 소식을 접한 양구기독교연합회는 환영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순훈 장로 제공)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특별성회 개최

정장은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장(동원감리교회 담임)은 6월4일부터 7일까지까지 동원교회 예배당에서 "건강한 가정만들기"란 주제로 2000년 특별성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기간동안 전 총리이며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이영덕 장로와 가정경영 상담원장 공보길 박사(명지대 교수) 건강한가정만들기의 저자 정성문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만들기에 필요한 주옥같은 말씀이었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새얼굴

2군단 안빛교회 군종참모 서용오 목사



서용오 목사는 금년 5월에 제2군단 군종참모로 부임하여 군단 내 군인교회(한빛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는 78년 공주교고를 졸업하고 83년 침례신학대, 90년 예세이연합신대원, 금년도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84년 7월 군목으로 임명하고 27사단연대 군목을 시작으로 국군청평병원, 육군사관학교, 제9공중특전사단, 보병제62사단, 수도기갑화보병사단, 국방부 인사복지국 군종실에서 지난 5월 제2군단 군종참모로 자리를 옮겼다.

서목사는 할머니때부터 이어지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할머니의 소원으로 목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활발한 성격으로 매사에 적극적이며 군단 군종참모로서 전국 기독교 신인화를 위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상호협력하는 등 병사들의 신앙향상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도경찰청 교경협의회 총회개최

-새회장 권오서 목사 경목실장 오승룡 목사-

강원지방경찰청 교경협의회는 5월30일 오후2시 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선거 및 사업계획등을 협의했다.

이날 총회선거에서는 회장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부회장 박나라 목

사(태백한사당교회) 경목실장 겸 총무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 간사 원기배 목사(춘천광장감리교회)를 선출하고 경경안 협조와 주민복지지원을 위한 사업등을 협의하였다.



일본한인교회 부흥성회 개최

- 조남진 장로, 문선재 총장 강사로 초청 -

일본한인교회(김형목 목사)는 6월 24~27일까지 장로강림식과 부흥성회를 연다. 부흥성회를 위해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전국조연합회장 조남진 장로와 예일신학대학원 대학교총장 문선재 목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김목사는 60년만부터 춘천에서 성경구약부 회원으로 신앙운동에 열과성을 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히 72년에 시작된

춘천성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일본 한인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70년대 춘천성시화를 이끌었던 신앙의 용사들이 목사와 장로로서 일본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 등 은혜의 천국찬미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일본에도 춘천성시운동이 싹트게 될 이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 남신교회 연합 헌신예배
전국 남신교회 연합회(회장 이기종장로)는 5월21일 저녁7시30분 춘일감리교회(김동희 목사)에서 연합 헌신예배를 드렸다.



홍천신우회(김자경 회장)는 5월 27일 오후1시30분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설교 김광섭 목사, 장병목 목사의 기도, 홍천군보조선 직원들의 특송으로 창립1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세발침례교회 경로잔치
춘천세발교회(장상교 목사)는 5월21일 오후1시 지역 어른 70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배설했다.

5월 성시선교 후원자 명단

★장기후원자님★

황순국 김명숙 홍달생 김원철 안정숙
이병연 성기는 정유영 최상호 한희현
안미에 홍순복 임은경 정순녀 김진현
최용은 이준태 최용은 정창환 조경민
홍성은 정용원 황병환 오홍수 박동환
조정국 김기태 엄필남 유태희 김석범
윤진국 장기영 이수만 김원호 정석순
민병필 김영명 김태웅 이학규 유근창
조남진 한순수 조충환 김남철 이병찬

춘천은혜장로교회(지용환 목사)
춘천순복음개요교회(하길복 목사)
춘천소망성결교회(이원호 목사)
춘천석사강교회(임택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김두환 목사)

★단체후원자님★

신종철(유성건설)
이반호(일로에어리)
이유규(영광의원)
조은제(베드로병원)

★신문광고후원자님★

홍천군신우회
아리대(술로문공금속전문점)
한국통신춘천전파통신우회

★초교파후원교회★

춘천시암중앙성결교회(최상도 목사)
춘천인신장로교회(이은주 목사)
춘천원림침례교회(신성관 목사)
춘천늘사랑장로교회(정재호 목사)
춘천양문순복음교회(김길홍 전도사)

본지는 하나님 교회와 문서선교를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많은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농협 203-02-280238 조충환 716-01-001389 (예금주: 조남진)

결손가정 청소년돕기 후원 희망자 모집

춘천성시화기도모임(대표 허종구장로)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월드리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강당에서 초교파교회 목회자와 성도, 청소년들이 함께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 춘천시민과 교회, 세계선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내 교회와 선교단체가 차례로 기도회를 주관하여 많은 성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편 기도모임은 기도하셔도 작은 일을 실천할

것을 결정하고 매월 한 가정 동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고 후원자를 접수하고 있다. 후원금은 매월 3만원이며 월1회 이상 만남의 시간을 통해 사랑으로 보살피는 방법으로 후원한다.
이 일을 주관하는 성시화기도모임 봉사부장 기성희 전사(베드로성결교회)는 춘천을 성시화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을 보다 밝게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TEL. 256-1260

미신 우상의 나라 인도 선교보고

- 이상기 목사 8인의 비틀리 연못 세례식 거행 -

“지금 이곳은 약 100년 만에 겪는 최대의 기쁨과 몇 차례의 비를 동반하지 않은 태풍으로 약 5천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낸 대재난과 섬세 40도 이상의 폭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큰 태풍을 동반한 대홍수로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는데 물이 없어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현지 신도들은 연일 침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천만 내지 3억여명의 우상들이 있는 종교의 대백과 사전이라 불리우는 나라, 인도의 모든 백성, 길가터의 거지를 조차도 매일 우상에게 제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항상 어디에서나 먼저 우상에게 감사하고 쓰며 업장나게 많은 우상들의 축제는 빛을 내서라도 반드시 지키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저희 동역자들과 지체들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자훈련센터에 지체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거의가 일지리를 기대하고 입고왔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헌신되어졌으며 돌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고 있어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약 3개월의 기간을 통해 이러한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하였던 바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 3월5일에는 이곳 켈러 한사관 한 인교회에 세워진 이후 약 2255개월 동안 이곳 교회에서 양육 받으며 함께 하던 박미야 자매님이 교회 집사로 임명되어지는 예배가 있었고 처음으로 8명의 헌신인 지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조만간, 니루포바, 비, 비산발, 몬달, 오문, 팔, 수무루아, 켈, 뽀뽀, 로렌드라, 고로이, 라주 다스) 헌도기도의마를 한가운데

서 진행한 이 세례식을 지켜 본 현지인들은 방학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는 처음 보았다고 언제 또 하느냐고 관심을 보이는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 다.
힌두교에도 세례식 비슷한 것을 통해서 헌도에 헌신시키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문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 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 세례식 전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의 혼란센터에 많은 비가 내려 센터 안의 연못만이 유일하게 마르지 않아 세례식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 다.
세례식 이후 지체들의 삶은 더욱 더 귀하게 성숙되어 가고 훈련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나 전도활동, 교회활동 등이 더 적극적이게 활발해졌습니다.
몇달 전에는 오후 전도사역을 이용해서 지체들이 칼리푸(Kalipur)라는 한 마을로 들어가 전도해서 새로운 교회모임을 이루어 냈는데 첫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제자 들어갔을 때 장년 15명과 어린이 30여명이 모여 예수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는 4개 교회를 돌, 석, 벽을 주어 받들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곳 지체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간절히 사모 합니다.
인도켈러에서 이상기, 박정숙 선교사

★후원안내

- 농협중앙회 203-02-268181(박정숙) / 203-02-289271(이상기)

조선

춘천장로교회 회계부 목사님 모퉁이에서
82세의 나이로 5월25일 오후3시30분 소환되었습니다.
5월27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동정

○임택환 목사
춘천석사강교회 담임목사는 춘천경찰서 행정팀 전원원회 회장에 선출되어 6월5일 동부연회 남교교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후원했다.
○김두환 목사
춘천순복음개요교회 담임목사는 5월22일~24일 전국순교자대회에서 참석하여 6월1일 대전시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성서운동권 행사 첫 예배에서 설교했다.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는 6월18일 사립의 한일 및 구제 정기회원회의를 주관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군 목사
춘천장로교회 담임목사는 6월26일 본교의 칠마기교회에서 기혼성도를 대상으로 결혼서약식을 주관했다.
○김재명 목사
석사순복음개요교회 담임목사는 5월25일 저녁7시30분 성서회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회를 주관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상철 목사
춘천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는 6월1일 월드리전 3층강당에서 열린 성시화기도모임에서 설교하였으며 매주 헌신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유진환 목사
남춘천장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29일 저녁7시30분 제2회 전교인 찬송경연대회에 참석

했으며 6월4일 오전11시 세례식을 집례했다.
○차관식 목사
춘천동지침교회는 6월5일 오전 11시 신성장교회에서 춘천동지침교회를 주관하고 6월5일 춘천경찰서 교정회의의 특별성서 저녁예배에 참석 속도를 7월26~29일 강릉시 주문동에 소재한 강원대학교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장규남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교목목사는 6월13일~20일까지 춘천동지침 교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났다.
○정성문 목사
춘천중앙교회 교정회의(동교회)는 6월4~7일까지 동원장로교회에서 교정회의의 특별성서로 간강한 가정인들기 세미나를 주관했으며 여선교회원 위아유리축로 삼켜 한선동들을 견학했다.
○김지현 목사
춘천신복장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16, 17일 경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여름성경학교 교사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6월6일 동부교회에서 개최된 강변교회동부 교목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6월19~20일 함백중앙교회에서 열린 성서회 교목대회와 21, 22일 원주시교목대회에 참가했다. 23~24일 춘천지역 교목대회를 실시했다. 6월29일 저녁7시30분 춘천성서회 기도모임에서 설교할 예정이다.
○유진환 목사
남춘천장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28일 오후8시 양주중앙교회 헌신예배를 인도했으며

29일, 1월 목장교회 교목대회에 참석하여 설교했다. 6월25일~1주단 대전총회교에서 전국선교대회에 주제를 하고 7월13일부터 유림지역 선교활동에 나섰다.
○김성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의 부목사는 5월18일 성서(가)도모임에 제12인수교회의와 함께 참석, 설교 말씀을 전했다.
○조남진 장로
춘천성서본부는 6월7일 낮12시 부설도 모임을 주관하여 성서본부 성서사학운동본부 부팀예배에 춘천성서본부 대표로 참석하여 7월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2일 오후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군단 주관 군악제와 7월13일 월드리전 50주년 기념 국제합창연주회에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참가했다.
○이영일 선교사
인도비라주에서 선교사역 중에 있는 이영일 선교사는 6월12~22일까지 춘천을 방문하고 또 7월14일부터 8월7일까지 춘천에서 선교보고를 하고 9월을 앞두고는 비라주 10개도시 전도 프로젝트와 부흥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유태희 장로
강원도동부연회 장로연합회장은 6월18일 산골교회에서 (동해, 삼척, 고성)를 임원(김기태, 심인섭)들과 함께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
○정성일 장로
강원도동부연회 남교교회 회장은 6월6일 동해시 삼척동부연회관에서 열린 동부연회 감독기 정할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이윤구 총장
인재대학 총장은 6월23일 양양에서 강원도 사회봉사 사학의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대회에서 특강할 계획이다.

선교회소식

○강원대학교 기독교교회(전성희 회장)는 6월3일 문배마을 정상에7가정, 15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강에서의 올바른 삶과 직강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에베레스트 단합대회를 가졌다.
○순복음춘천교회 제12인수집사회는 5월18일 성시화기도모임을 주관했으며 에베레스트 단합대회에서 준비한 다과로 진로했다.
○예수제자운동(윤태호 목사)는 6월2일부터 3일까지 국제선교훈련원에서 강원대, 한림대, 교원대, 한림성모대 등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6월 가족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예수전도단(김봉국 목사)은 5월30일~6월2일 춘천중앙장로교회에서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광 전사의 전양사역 및 예배회복을 위한 예배회가 있었다.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큰 용사여 다 일어나라”는 주제로 7월2~6~29일까지 호서대교회 이상 분교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역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교육 YOUTH”를 개최한다.
신장: 252-1128 예수전도단춘천 / 0366-432-5613 예수전도단총회
○제2회 세계직장선교대회 개최
세계직장선교대회(총회 박종원장로)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구자문장로)는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8월14일 오후6시부터 15일 오후3시까지 서울상선교회(강남구대치동11길)에서 박종원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제2회 세 시대는 세계 직장선교!”라는 주제로 직장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문의처: 0213471-5070-2 / 팩스 0213471-5073
E-mail: wormission@gmail.com, or.kr
○2000년 세계선교대회(WMS2000)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WMA)가 주최하고 평신도전문인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에 8월15일 오후5시 잠실체육관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8월16, 17일 연세대학교에서 길자현 목사, 김동호 목사, 함종호 목사들을 강사로 초청 “한국교회 개성과 평신도 선교전략”을 주제로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 전화 021476-7981-3 / 팩스 021476-7984
E-mail: KWMA@Chollian.net

춘천 대학생 선교단체 연합회 발족

춘천기독교 연합회(황영환 목사)는 5월16일 오전7시 두산리조트에서 각 대학생선교회 대표, 춘천성서회운동본부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춘천성서회와 학생복음화를 위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연합으로 역량을 결집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학원선교회 대표들은 이를 수락했다.
금후 학원 동 5개 선교단체들은 손을 맞잡고 춘천기독교연합회 산하 하나의 단체로서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동 선교단체 대표자들은 각자 상의직제 조직하에 있으면서 춘천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 일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수시 또는 정기회 모임을 갖고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연합조직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7월7일부터 9일까지 전국대학생 선교회원 1천명이 참가하는 춘천지역 총력전

대회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C.C.C. 대학생선교회의 주관으로 추진키로 결의했으며 기타 필요한 부분은 교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조판기대회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황영환 목사, 수석부회장 김주환 목사, 부총무 이학규 장로 등 임원과 JDM총회 윤태호 목사, 춘천C.C.C.대학생선교회 대표간사 정경호 목사, 예수전도단 대표간사 김봉국 목사, IVF 남파간사, UBF 김바울 목사, 성서본부 조남진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춘천의 복음전도를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귀한 연합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람적인 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창립 50주년 맞아 세계음악제 열려

- 월드리전 창립50주년 기념 덴마크, 호주합창단 순회연주 -

한국월드리전 강원지부(지부장 조남진 장로)와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순창 장로)는 월드리전 창립50주년 기념사업으로 내한한 덴마크와 호주합창단 지역총회 음악연주회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7월13일 오후7시 열고 이날 CBS소년소녀합창단이 협연하게 된다.

평소 월드리전을 통해서 국내외 이웃을 돕고있는 춘천의 기독교인들과 일반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마련한 수준높은 합창단의 연주이므로 합창단의 연주회를 열게 된 것이다.
보기도는 세계적인 연주회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투고

나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밀몬의 글 실력원이 아니라도 성경은 죄악 때문에 인간들이 낙원을 상실했고 에덴동산의 금으로 다시 낙원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취한 인간은 멸망의 대로에서 죄와 동거동락하며 죄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만민(종교)으로 천국을 유망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며 돈만 인생의 최상의 낙요, 멋있고, 보람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밀몬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여 부끄러워하는 박창호 같은 인간들, 인생의 정치는 다 많이 가지는 것이라며 축제를 무리처럼 즐기고 더 가지기 위해 복을 사기하고 배신하는 현실에서 부유한 자가 행복이요 가난한 자는 불행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서로를 평가하는 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어두워진 눈으로 영명의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구원의 손길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로 나입니다. 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리우스 시몬에게 멸망 받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는 시몬 소리는 바로 나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한번도 제대로 전도해보지 못한 나를 위한 기회가 왔습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앞장서고 성서회 운동본부와 대학생선교회가 협력하는 춘천성서회를 위한 총력전대회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7월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최대의 전도대회인 각교회에 10만명 배속되어 성도들과 함께 대발전하게 됩니다.
역사 이래 처음있는 전도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시고 적극 동참해서 후회없이 합시다. (이바울 권사)

웅천교계소식

●흥천교 신우회 정기기도회

흥천신우회(김지창 회장)는 6월14일 낮12시 흥천교 서면 유류보전소에서 운동주 전도사(모국선교회)를 초청, 남북정상회담 결실과 통일, 직장선교와 복음화, 초교파적 교회일치를 위한 정오기도회를 열었으며 연례를 식당에서 오찬으로 치렀다.

●흥천교회 부흥대회

흥천교 내내 열릴 소세 동창장교회(신동진 목사)는 지상2층 110평의 교회를 건축하고 2000년 6월5일 오전11시 흥천동지침교에서 이재호 목사(소망교회)의 설교와 김기호 목사(인선총회중앙교회)의 축도로 200여명의 성도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감사예배를 드리고 동지침교회의 및 여선교회 개척회를 열었다. (동창교회 ☎366-435-3257)

●흥천교신우회 2/4분기 회신대회

흥천신우회(김지창 회장)는 5월27일 오후1시30분 흥천교 갈마교회 문화예술관에서 김명철 지주목사, 관대 목사, 부총무 모시고 1주단 기념강사예배를 드렸으며 6월18일 오후7시30분 흥천영주교회(윤순식 목사)에서 1/4분기 헌신예배를 드리고 모반학생 2명에게 장학금 각 100,000원을 전달했다. (이상순 명예교회홍천지부장)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로센지역 성지순례기

이원욱 목사
(제일감리교회부목사)

(전환 계속)

우리 일행은 이집트 박물관과 예수교인 교회를 살펴보고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 출발하였다. 그들의 출애굽 출발지인 라암세스 그리고 숙곳 등 고센지역부터 가나안지역 사할성까지 일정으로 돌리고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 수에즈 운하 레저터널(1,370m, 지하25m)을 통과하였다. 애굽 땅 본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 불과 구름길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건초 밭고 메마른 시나이 땅으로 들어섰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영토로 약2만평 정도가 거주하는데 그중에 유목가 베드윈으로 부르는 유목민들이 5,000명 정도 살고는 있지만 거의 불모의 땅으로 메카로 가는 순례자의 땅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해 연안으로 꽃에 휴양촌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황량한 사막이 이어졌다. 우리는 예담 땅아를 거쳐서 마라에 도착하였다. 출 15:23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지기에 샘의 흔적이었던 듯한 구덩이가 여거지기에 파여있고 물론 그 안에 물은 없었고 온갖 잡초들이 들어 있어서 다소 심할만큼 안거 주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멀리 많은 곳에 아이는 무시(모세의 온친)가 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출15:25) 실제로 그 온친수의 온도는 20-30도 정도이다.

비스에서 마라와 마자 "원달라"하면서 달려들었다 아이들과 관광객들의 행동기

지를 지켜보면서 우물 주변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젊은 청년으로 몸은 감편 여인들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이다. 열쇠고리와 목걸이등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상상외였다.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보통 한달에 천달러(1,000\$)를 넘는다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받는 돈과 원달라하는 열쇠고리를 파는 적지않은 수입을 가지고 이곳의 여인들은 주로 무엇을 할까?

첫째로는 남편에게 "작은 아내를 얻으세요"이고 둘째로는 "좋은 차 하나 구입하세요"이다. 이 여인들은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도시로 나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이들의 삶전체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이드로부터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시나이반도 거주민들의 결혼풍습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곳 땅에서는 보통 처녀들이 16세가 되면 결혼적령기로 본다.

20세가 넘어서면 노름 소리들 들을 정도이다. 그리고 가짜 집마다 장대를

세우고 하얀 천을 달아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에 결혼식일 치러가 있으면 테라카라는 표시판이다. 그것이 아니면 "회교성지순례중"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5-50세 정도이다. 이렇게 단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에 있다. 이곳 물은 석회석 물인데 장복한 장자들을 걸식시키기 때문에 각종 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인지 워낙 이곳 사람들의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노화가 빠르고 거기다가 설당을 많이 사용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어서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병원시설은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다.

우리 일행은 메마르고 건조한 석회암 성벽의 신갈아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아말레 군대와 싸워이기고 "여호와 시"를 고백한 르비딤(출17:1-16)을 지나 시나이산을 통과하여 저녁 10시가 넘어사야 시내산 아래 모카두스 산장에 여장을 풀었다. 내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거룩한 산, 시내산을 오르기 위하여 잠깐 잠을 청했다.

천전감리교회 봉헌예배 드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천전교회(이복규 목사)는 5월20일 오후1시 춘천시 신복읍 읍원리 321-3번지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시내대리교회 목사, 장로, 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일 안에 봉헌예배를 드렸으며 신축에, 이규혁, 장근식, 조은구 관사의 장

로 취임식을 가졌다. 교회장 봉헌식은 동부연회 김명기장로, 장로취임식은 북지방감리사 한 권복목사가 주례했다. 대지 798평, 연면적 235평(주대35평)에 총공사비 7억7천2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영동지역 산불피해 이재민돕기 성금전달

감리회 평신도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유상열장로) 공동대표회장 김형재 장로(영월실교회),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는 5월29일 오전 11시 태백한빛교회에서 장로로 구성된 전국 임원들의 특별기도회를 열고 축사에서 산불피해 이재민돕기 헌금

으로 모은 2백만원을 6월5일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임원들은 각 교회별로 계속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이재민돕기 성금은 대표회장 유상열, 공동회장 김형재, 부회장 이학규, 기획위원장 김기태 장로가 전달했다.



지난 5월 16일 아침 두산리조트에서 기독교연합회 주선으로 춘천지역 대학생 선교연합회를 조직하고 축회예배에 동참을 다짐했다.

세알굴

흥천제일감리교회 김진석 목사



김진석 목사는 흥천서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단 협성신학교를 거쳐 감신대와 감신교대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92년4월12일 서울연회 노년지방 은광교회로 출세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 94년3월1일 흥천제일교회로 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97년8월2일 경기연회 안양지방 대흥교회 담임, 금년 5월25일 흥천제일교회로 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김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와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 이들을 내용과 같이 "선교"를 목회방향으로 세우고 개척교회부터 국내 1개소, 국외2개소(태국, 쿠마리아)를 대상으로 선교에 열과성을 다하고 있으며 목회자로서 삶 속에서 예수를 알아가기를 목회방향으로 목회자 영성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유능한 목회자이며 기독교인들이 불신주의로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아래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훌륭한 목회자이다. ☎ (0366)433-9182 흥천제일교회



흥천제일감리교회 창립예배
5월25일 오전11시 흥천읍 전리 41-3번지에 교회를 세우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열산 3:26)



변석국 목사
(춘천원정교회)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길잡이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없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사람반은 아내 라헬이, 제사장 엘가바의 아내 한나가 자신들의 남편의 첩으로부터 열식을 받은 것은 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인들의 태가 열리고 닫히는 문제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로 여겨졌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태가 열리지 않으면 고백하여 왔습니다. 마치 교회의 부흥이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브리에서 자비(불쌍한 여인)와 태(자궁)의 여인은 동일(즉,)하며, 육적 언어인 자궁이 영적 언어인 자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단언할 때 "레벨"으로 쓰일 때는 자궁을 뜻하나 복수형 "라함"으로 쓰일 때는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관 관한 사건 속에서 자비(라함)의 단어가 쓰여졌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이요, 산 아기가 내 아기가" 서로 주장하는 창기들의 얘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눠 저들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산 아들의 의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심정으로 왕에 아뢰니 "산 아들을 자에게 주라"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여기서 표현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의 문학적 의미는 임신한 여인의 태가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로에 선 자의 앞에서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모성에 애절하게 표현한 것이요, 바로 여기에 불붙어 여긴다는 '라함'의 단어가 존재하며 주제를 이룹니다. 태가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기를 태중에 잡아둘 수 없게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절대적 열의의 순

간을 말합니다. 자신의 아기가 죽을 위험에 놓인 순간 아기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불쌍함(라함)의 극치 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의 결과 생명 획득이요, 어둠의 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 자신의 태를 포기하여 많은 자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자비의 행위로기 때문입니다. "불붙는" 태의 마지막 위대한 역할은 타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기생명 포기였습니다. 이를 거부할 때 태 새로운 생명은 동시에 죽음의 두산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자기 아기를 너무 가까이 하여 죽인 창기 처럼요, 그런데 불붙은 여인이 그치지 아니하고 남의 애가 죽도록 죽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시립은 밤이었습니다.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으며, 밤에 거리의 앞잡이 사단이 찾아 왔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한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어진 전성회의 군대 같이 때론입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불붙는 태는 마치 포구를 쏘아 나가 바위처럼 차갑고 요새화 된 적진을 초토화시킨 포탄과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초대교회로의 회귀 보다는 중세의 암흑기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않은지요? 태는 있으나 닫혀 있기 때문이요, 교회는 존재하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와 신앙의 태를 진단 받아야 합니다. 닫혔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고요, 태가 닫혀 임신 여감을 당하고 있다고요? 아니 자식이 없다고 사람들은 자의 태를 임신여기고 있다고요? 이제 더는 이용하지 않는 것은 내 것, 불도 없는 것은 내 것, 바를 세웠을 남비하지 말고, 불 붙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이슬의 형상으로 달려갑시다. 음침한 밤의 음모도 모른 채 만족하다 지는 자식들만 말아먹어 걸식사 시키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참된 행복을 세롭게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하고 열려진 태, 불붙은 심장을 갖고 달려가 해산하는 기쁨의 고통을 나누는 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박달나무 단군(檀君)을 제사장 단군(壇君)으로 바로 알자

충남천안에 본부를 둔 '한문화운동연합'이라는 사설단체가 '단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운운하면서 천국의 학교와 공중문 등을 기증행위로 공금하고 있는 소위 단군상 건립 파문이 좀더 가라앉을 기회를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되고 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어디까지나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고증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 합일점까지 모색하여 재현당할 논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할 터인데 저들은 감히 민족의 역사를 사나임 시작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지의 독단을 부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이리저리를 타고서 반대하는 예국 애국하는 천만 기독교를 오로지 반민족 종교 운운하며 여러차례 목격의 달성을 위하여 적반하장 미련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중 치대한 사태를 두고 국민적대회의 교육계나관련 행정부서, 국사편찬위원회 등 책임있는 부서에서 수주방관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이다.

분명 행행 교과서와도 거리가 있는 주장일 뿐더러 매일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계에서 우려와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작한 국조(國祖)의 상이라는 것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여론 수렴등의 과정도 없이 일개 사설 단체가 국조를 자외로 해석하고 만들고 보급 설치해도 국가기관 등에서 아무런 제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는 역사의식도 문화적 소양도 없다는 것인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은 현행 국사 교과서는 단군신화를 그저 단순한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신화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화를 근거로 한 국조상을 그것도 한두개도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전역에 도배하듯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정말 역사에 유래가 없는 이런 무지한 행패를 세계는 무엇이라 바라볼 것인지 이 나라의 가치체계를 세는 저들이 온 세상에 노출된 것 같아 부끄러운 수치심에 볼 땀을 흘릴 지경이다.

물론 하도 여자가 없어서 아예 무시에 버리고 싶지만 우선은 자라는 아이들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잘못 배워갈테니 그것은 막아야겠고 또 그릇된 주장도 명백한 내세우면 통하는 상식적 못한 민간한 사회가 아니라는 따듯한 여론도 주어야겠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에 갈 것인가? 우선 저들이 표방하는 실리와 명분이 아니라 실리 살리기와 통일방안"이므로 기독교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칫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기 있으므로 근거없는 반대와 타당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단군은 국조로 기억해야 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조선의 제정일치를 담당한 즉(職)명(實)명(實)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자. 황폐한 대저리에 세워져있는 동상이 충무공 이순신의 상이든 단군한 직책(職)명(實)과 동상이 아니든 안국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국조의 상을 세우는데 그것을 고조선의 시

조로 정한단고 고조선 제1대 단군이 왕(王)이므로 왕정의 상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단군이라는 직책명(實)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사심을 바로잡아야 필요하다. 삼국유사의 공식기록을 비롯하여 원래 단군의 정확한 의미와 한자표기는 義(의)의 檀(단) : 檀으로 棠(棠)을 檀(단)으로 잘못 쓴 것이다. 단군이라는 단(檀)은 檀(단) : 檀으로 棠(棠)을 檀(단)으로 잘못 쓴 것이다. 단군이라는 단(檀)은 檀(단) : 檀으로 棠(棠)을 檀(단)으로 잘못 쓴 것이다. 단군이라는 단(檀)은 檀(단) : 檀으로 棠(棠)을 檀(단)으로 잘못 쓴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성의 때문에 이런 역사상 없는 잘못된 단군 표기가 언제부터인지 자제히 알 수 있었고 소위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언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제는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 박달나무 檀君이 제사장 壇君으로 바뀐 모습

을 찾을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며 창조신화에서는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건국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바로 백성들을 아끼며써서 천부민을 기리고 땅으로 내려온 천제(天帝)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으로 우리 민족은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리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게 된 천손민족(天孫民族)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심과 바벨탑 사건이후 노예가 지경으로 떨어진 민족의 이중 그릇으로 되어서는 창조주인 환웅의 후손으로 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살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단군(檀君)신화는 묵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은 많은 사료의 유실이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 상당부분도 축소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치유할 생각은 없고 그 사료의 부실을 이용하여 그것만 세 확산을 확대하는 자들은 마땅히 조국과 민

족의 이름으로 정죄되어야 할 것이다.

국조대왕 생신기 가능한 강화 플라스크 제품으로 상(賞) 하나 만들어 보급하는 일로 어떻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교사의 가르침과도 다른 이런 운동이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지 학교와 대학에 들어와서 하는 등 요란한 모습들인지 부디 명분만 가지고 온 사회가 부화뇌동하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하여 5천년 역사의 대국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우리들의 눈을 더욱 부끄럽게 할 것은 정권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교조적(敎條的) 사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한때 평양에 한민족 역사의 격동지임을 역지 파시하기 위하여 단군에 대한 김학을 보여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후시, 설마 좌파적 시각에 동조하는 단군상 건립운동은 아니겠지? 해서이다.

김영우 (창조신학회 사무국장)